

미국장로교 목회자 설문조사

인구 통계 보고서

앤지 L. 앤드리어트 박사
2020년 10월



RESEARCH
SERVICES

왜 모든 미국장로교 목회자들에게 실시하는가? 왜 지금인가?

성도, 교회 직원, 중간공의회, 교단 지도자들은 리서치 서비스에 목회자들에 대한 질문을 자주 묻는다. 하지만 현재 갖고 있는 자료로는 이러한 질문들에 답을 하기 어려웠다.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에, 여론 조사를 실시해서 이와 같은 질문들에 답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로 했다. 페리 장 박사에게 이 작업을 맡겼다. 이 보고서는 설문 조사를 통해서 알게된 것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질문들도 제기하고 있다. 새 설문조사는 소수인종 목회자, 은퇴 목회자, 이종직 목회자, 위임 사역 장로, "파트타임" 목회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초유의 미국장로교 목회자 설문조사의 성공은 많은 협력 기관의 지원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그 협력 기관들 중 몇몇은 다음과 같다.

- Call to Health 프로그램으로 이는 연금국의 건강 증진 프로그램으로서, 목회자들이 건강 관리 목표에 참여하면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있다.
- 미국장로교 출판국은 이 설문조사에 다 응답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향후 구매에 있어 할인을 제공했다.
- 총회사무국, 선교국, 재단국의 의사소통 직원들은 설문조사 링크가 들어있는 글들을 작성했다.
- 총회 중간공의회 관계 사무처 직원들은 그 소식지에 설문조사를 주기적으로 알렸다.
- 교단 차원의 몇몇 위원회는 설문조사 링크를 그 구성원들에게 알렸다.
- 모든 기관의 데이터 그룹 구성원들은 정기적으로 만나 미국장로교의 데이터와 데이터 보고를 논의하고 개선하였으며, 새로운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갔다.

왜 지금인가? 교회가 답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수전 바넷, PhD, MSSW

디렉터, 리서치 서비스
행정 서비스 그룹
미국장로교

개요

미국장로교 목회자 설문조사는 110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으며 2019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시행되었다. 우리는 주소지를 확보한 모든 목회자에게 우편엽서를 보내 설문조사에 응해주시도록 부탁드렸다. 이 설문조사는 또 연금국의 Call to Health 도전 프로그램의 하나였다. 연금국의 협력 덕분에 응답자의 절반이 확보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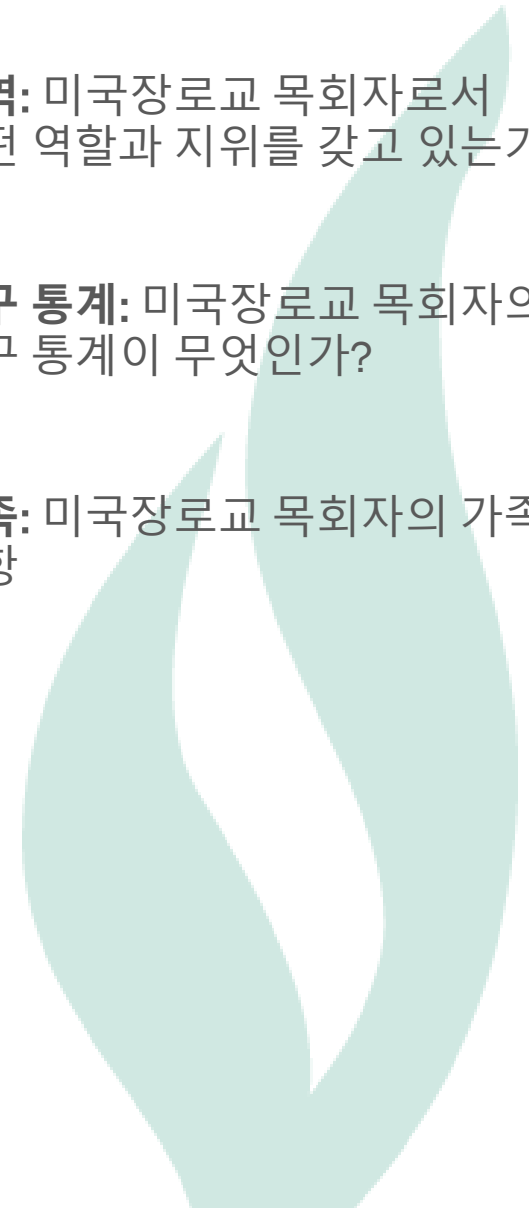
교단의 19,243명 (n=4,507)의 목회자 중 23%의 목회자가 설문에 응답했다.

이 보고서에는 설문 참여자, 그들의 지위 및 역할, 목회 정보, 목회자의 가정 정보, 인구 통계가 담겨있다.

01 **사역:** 미국장로교 목회자로서 어떤 역할과 지위를 갖고 있는가?

02 **인구 통계:** 미국장로교 목회자의 인구 통계이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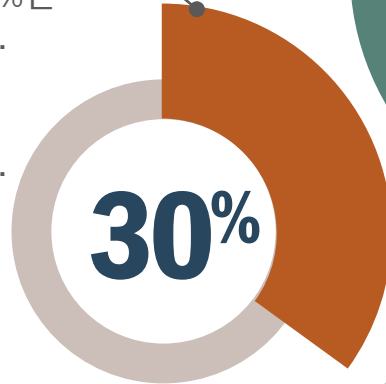
03 **가족:** 미국장로교 목회자의 가족 사항



대부분의 설문 응답자는 목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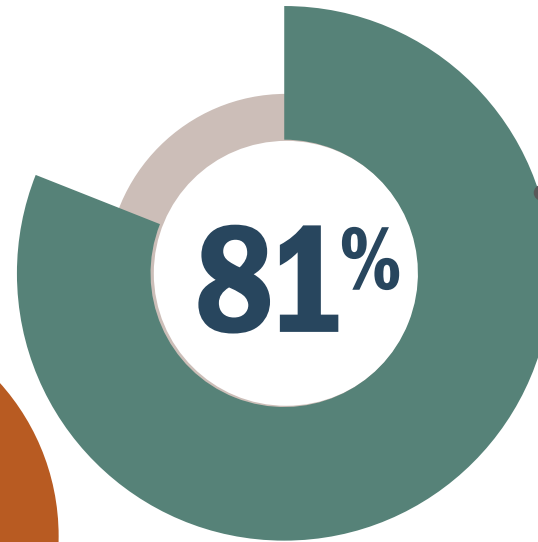
30%는 명예 은퇴 목사다

이들 "은퇴" 목사들 중 21%는 현재 사역을 섬기고 있다. 현재 사역 중인 은퇴 목회자들 중 4%는 한 개 이상의 직책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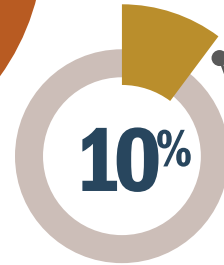


고용되어 있는 목회자의 **81%**는 목사이다.

미국장로교나 타교단을 섬기고 있는 위임 목사, 공동 목사, 설교 목사, 부목사, 임시 목사 들이다. 현재 사역하고 있지 않는 은퇴목사는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사역 중인 목회자의 **10%**는 한 종류 이상의 직책을 갖고 있다



같은 직책으로 여러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예, 두 교회를 섬기는 목사).

목회자(minister)와 목사(pastor)의 구분

목회자와 목사라는 용어는 종종 같이 사용되지만, 차이가 있다. 미국장로교에서 목회자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줄임말이다. 이들은 목사나 원목/군목 등과 같은 모든 직위를 섬기도록 안수를 받은 사람들이다. 반면에 목사는 교회에 대해 안수를 받았으며,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교역장로라 하기도 함)나 위임받은 평신도 목회자 (위임 사역 장로라 하기도 함)가 여기에 포함된다.

활동 중인 목회자의 90%가 한 종류 이상의 직책을 갖고 있다.

8%의 목회자는 두 직책을 보유하고 있으며, 2%는 세 개 이상의 직책을 갖고 있다.*

목회자가 갖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지위는 목사 직위다.

81%가 목사이다:

- 61%는 위임 목사다
- 17%는 설교 목사다
- 10%는 위임 부목사다
- 10%는 임시 목사다
- 3%는 미국장로교 소속이 아닌 교회를 섬긴다.
- 1%는 노회나 대회에 소속된 개척교회 목사 또는 전도자다

추가적으로,

- 응답자의 24%는 은퇴 목사로서 일을 하고 있진 않다
- 3%는 일(목회자, 일반 직장, 개인사업)을 하지만, 교단 승인 특임 사역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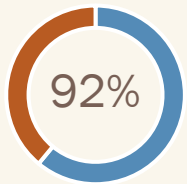
직책 (n=4843)	% 설문조사	% 미국장로교
미국장로교 교회 위임 목사 또는 공동목사 (101 또는 191)	36%	22%
노회 명예 은퇴 회원 (299)	30%	41%
설교 목사 (108)	10%	4%
미국장로교 교회 위임 부목사 (103 또는 193)	6%	6%
미국장로교 교회 임시 목사 또는 부목사 (105)	6%	3%
채플린 (641, 701, 741, 751, 761, 771)	5%	4%
노회 특임회원 (797)	4%	11%
다른 형태의 교단 승인 특임 목회자 (791)	3%	3%
기타 노회 및 대회 사역자 (302, 303, 304, 305, 306)	3%	1%
교수, 직원 (채플린 포함), 대학/신학교 학생 (642, 643, 644)	3%	2%
종교 기관 또는 일반 기관에서 일반 직업으로 근무하며 급여 받음	2%	--
개인 사업 소유	2%	--
미국장로교 소속이 아닌 교회에서 임시 사역하고 있는 목사, 공동목사, 부목사 (501, 503, 505)	2%	1%
특정 사역에 관여하고 있지 않은 목사 (795)	1%	0%
총회 기관 직원 (미국장로교 해외 선교 동역자 포함) (402, 403, 404, 405)	1%	1%
노회 또는 대회에 소속된 개척 목사 또는 전도자 (개척교회, 단체 또는 새 예배공동체) (301)	1%	1%
다른 형태의 종교 기관 직원 (702, 703)	1%	<1%
미국장로교가 아닌 교단, 에큐메니컬 기관, 교단이 아닌 기관의 직원 (562, 565)	1%	<1%

같은 직책으로 여러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예, 두 교회를 섬기는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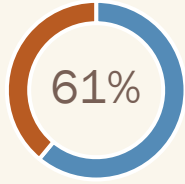
미국장로교의 데이터는 2019년 12월부터의 자료다.

백분율이 100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반올림을 했거나 또는 한 가지 이상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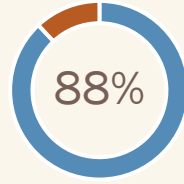
설문 응답자의 인구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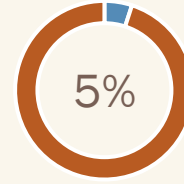
백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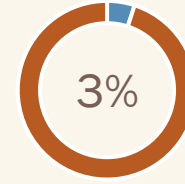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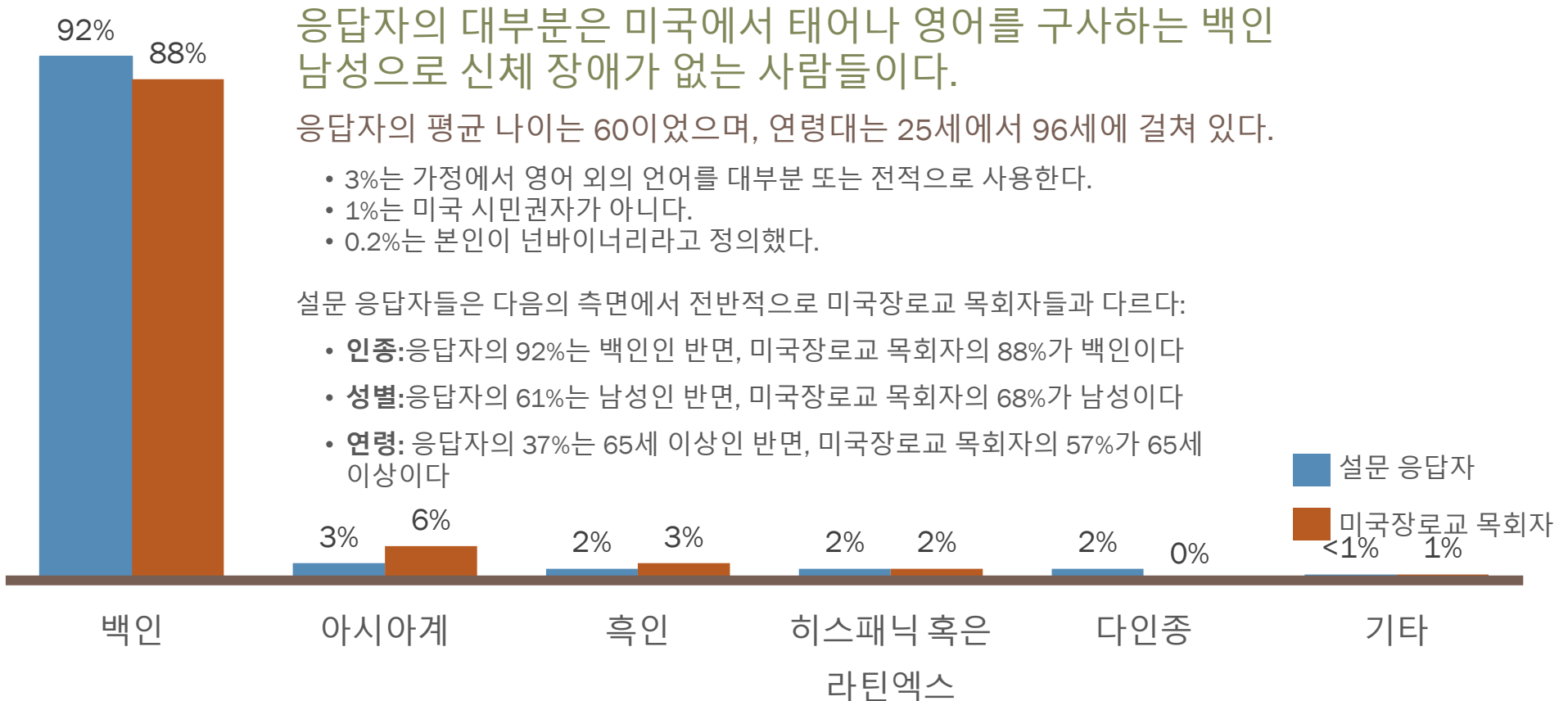
가정에서 영어만
사용



이민자



보조가 필요한 장애



응답자의 대부분은 미국에서 태어나 영어를 구사하는 백인 남성으로 신체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다.

응답자의 평균 나이는 60이었으며, 연령대는 25세에서 96세에 걸쳐 있다.

- 3%는 가정에서 영어 외의 언어를 대부분 또는 전적으로 사용한다.
- 1%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다.
- 0.2%는 본인이 년바이너리라고 정의했다.

설문 응답자들은 다음의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미국장로교 목회자들과 다르다:

- **인종:** 응답자의 92%는 백인인 반면, 미국장로교 목회자의 88%가 백인이다
- **성별:** 응답자의 61%는 남성인 반면, 미국장로교 목회자의 68%가 남성이다
- **연령:** 응답자의 37%는 65세 이상인 반면, 미국장로교 목회자의 57%가 65세 이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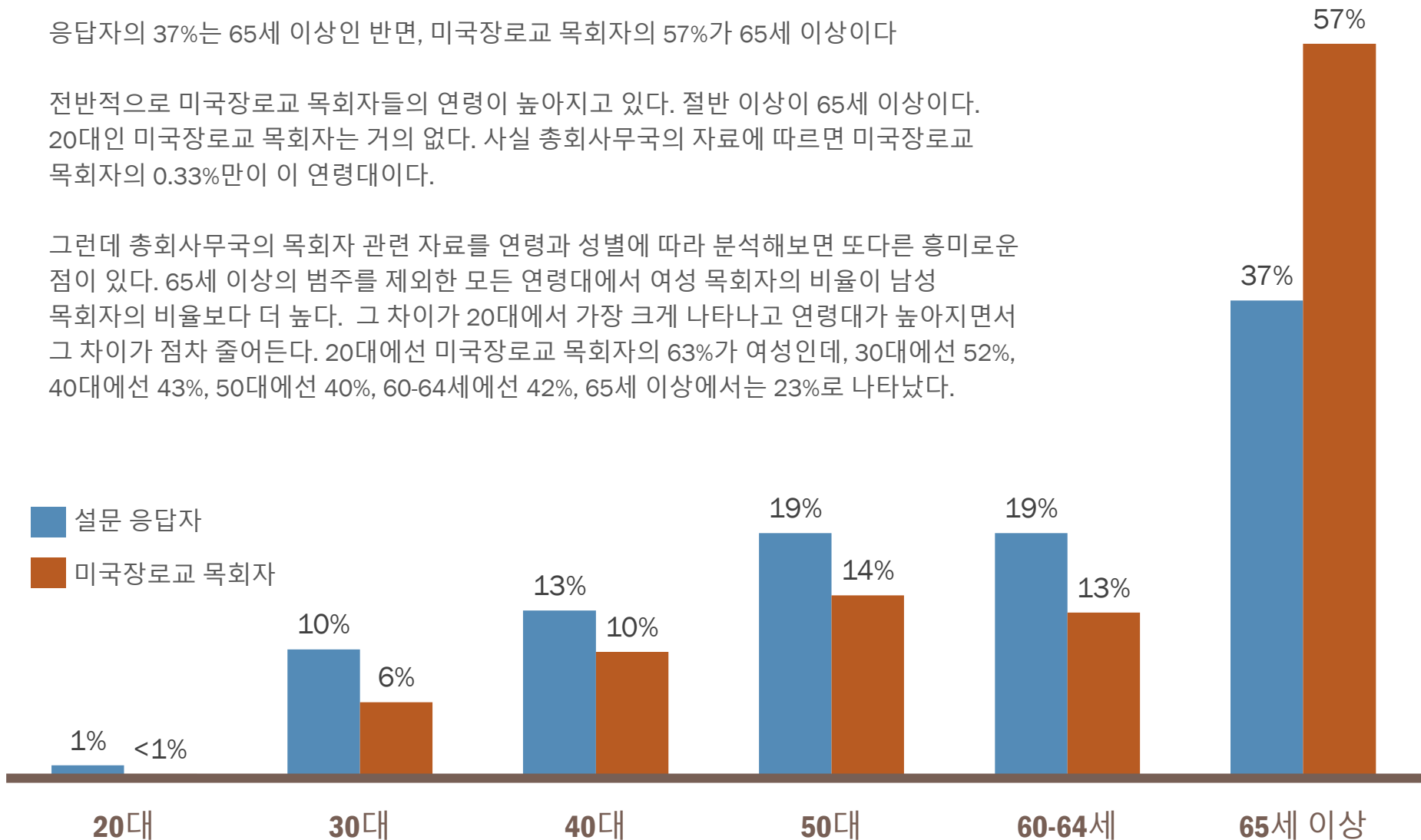
설문 응답자의 연령 및 성별

설문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미국장로교 목회자보다 젊은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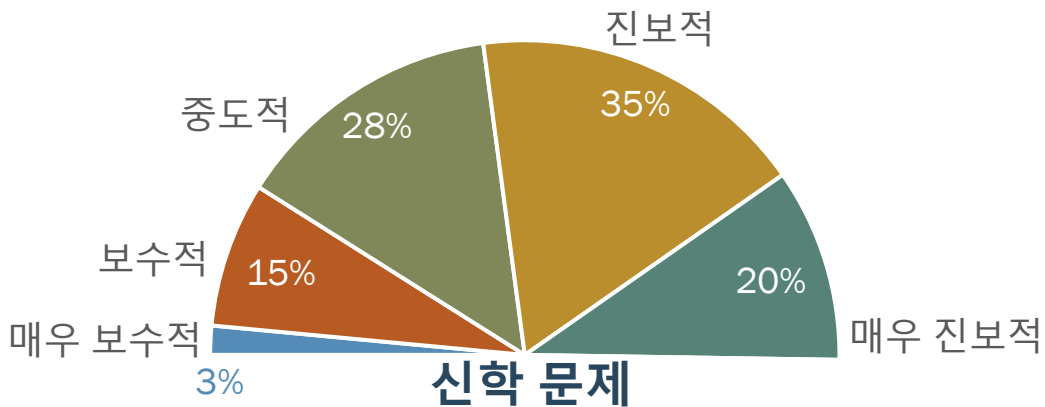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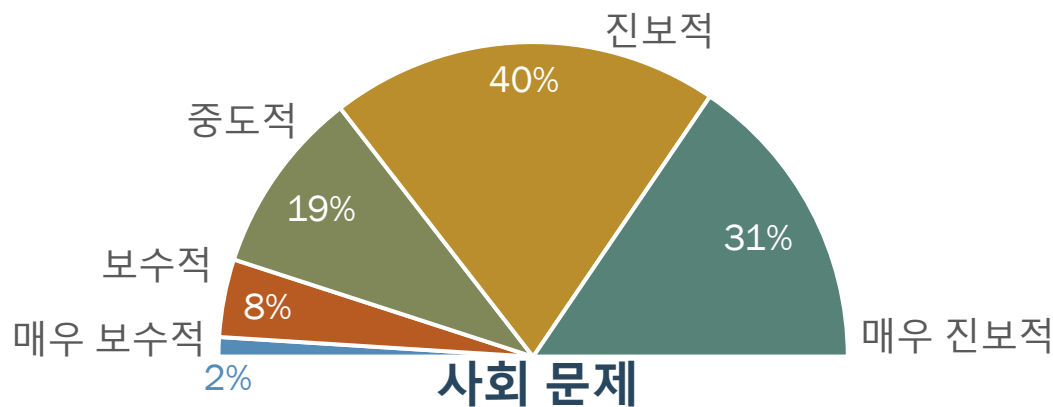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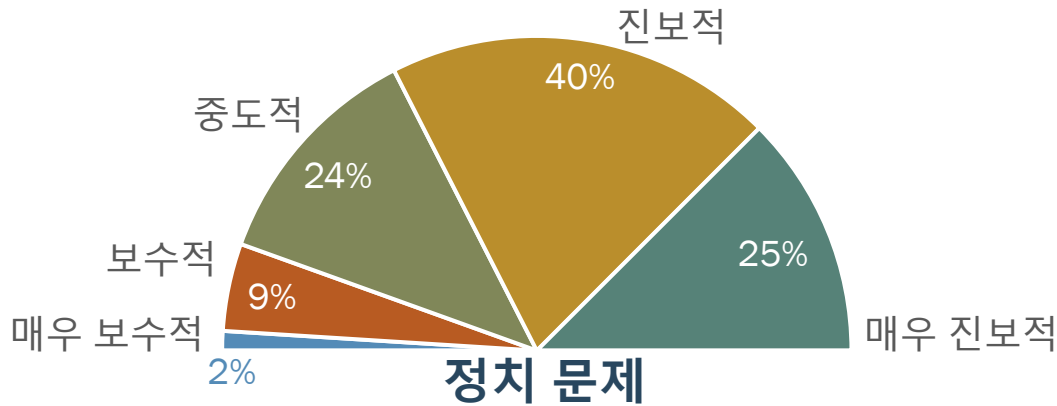
응답자의 37%는 65세 이상인 반면, 미국장로교 목회자의 57%가 65세 이상이다

전반적으로 미국장로교 목회자들의 연령이 높아지고 있다.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이다. 20대인 미국장로교 목회자는 거의 없다. 사실 총회사무국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장로교 목회자의 0.33%만이 이 연령대이다.

그런데 총회사무국의 목회자 관련 자료를 연령과 성별에 따라 분석해보면 또다른 흥미로운 점이 있다. 65세 이상의 범주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 목회자의 비율이 남성 목회자의 비율보다 더 높다. 그 차이가 20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그 차이가 점차 줄어든다. 20대에선 미국장로교 목회자의 63%가 여성인데, 30대에선 52%, 40대에선 43%, 50대에선 40%, 60-64세에선 42%, 65세 이상에서는 23%로 나타났다.



미국장로교 목회자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미국장로교 목회자는 진보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신학적 문제보다는 사회 문제, 정치 문제들에 대해서 진보적 견해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목회자들 중 11%만이 정치적으로 보수적이라고 응답했으며, 10%만이 사회 문제에 대해 보수적이라고 답변했다. 그런데 18%는 신학적으로 보수적이라고 했다.

- 63%는 민주당원이다
- 11%는 공화당원이다
- 12%는 독립당원이다.
- 11%는 정당을 선택하지 않았다
- 1%는 기타 정당을 선택했다

기타 정당을 선택한 38명 중에서 10명은 다음과 같은 말들을 기록했다. "공화당이었으나 지금은 아님," "옛날 형태의 공화당원," "트럼프 지지자는 아님."

또 다음과 같은 이들도 있다:

- 10명의 녹색당
- 7명의 사회민주주의자
- 5명의 자유주의자
- 2명의 근로 가족당(Working Families) 지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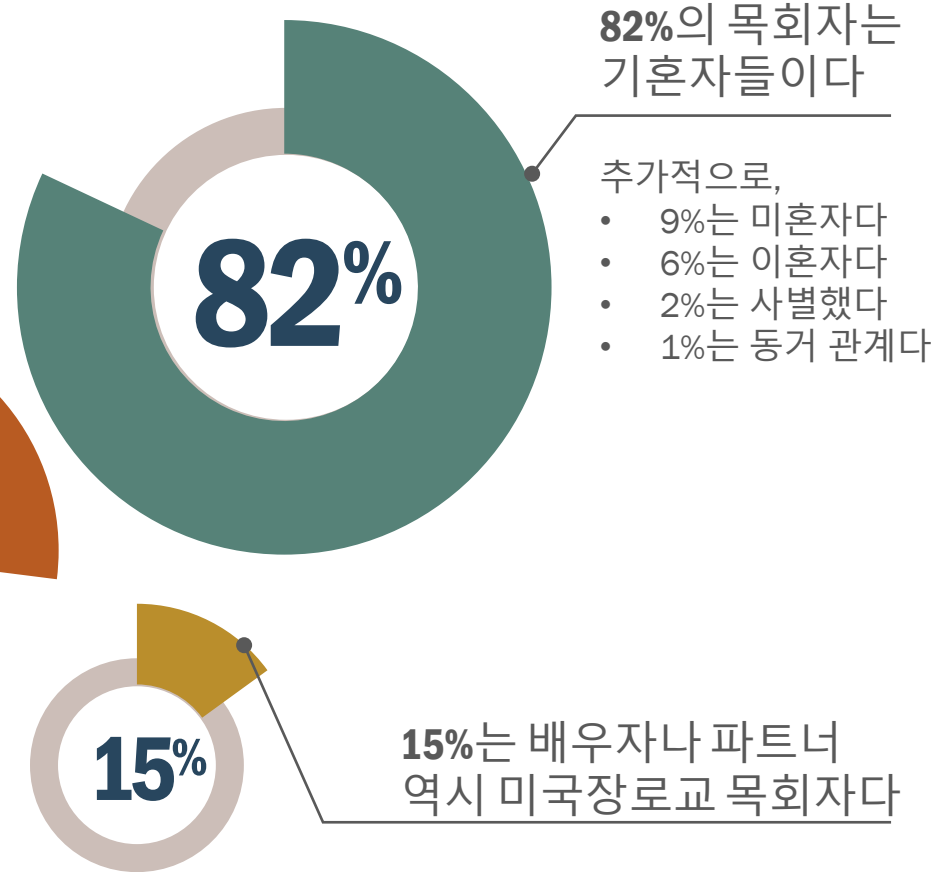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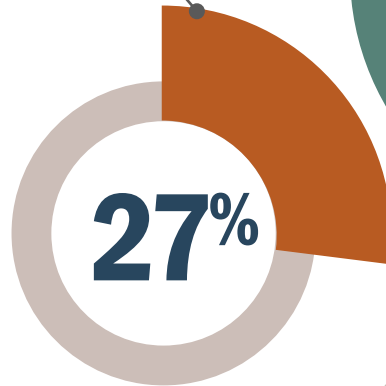
이 자료는 젊은 백인 남성에게 편향되어 있기에 미국장로교 목회자 관련 전반적인 자료와는 다를 수 있다 젊은이들은 더 진보적인 경향이 있지만 남성과 백인은 더 보수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차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실제로 예측할 수 없다.

목회자와 그 가족

27%는 집에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

추가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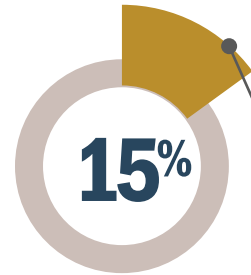
- 14%는 집에 18세 이상의 자녀가 있다
- 61%는 18세 이상의 자녀가 있으나 같이 살진 *않는다*
- 12%는 고등학생 자녀가 있다
- 20%는 대학교, 신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녀들이 있다



82%의 목회자는 기혼자들이다

추가적으로,

- 9%는 미혼자다
- 6%는 이혼자다
- 2%는 사별했다
- 1%는 동거 관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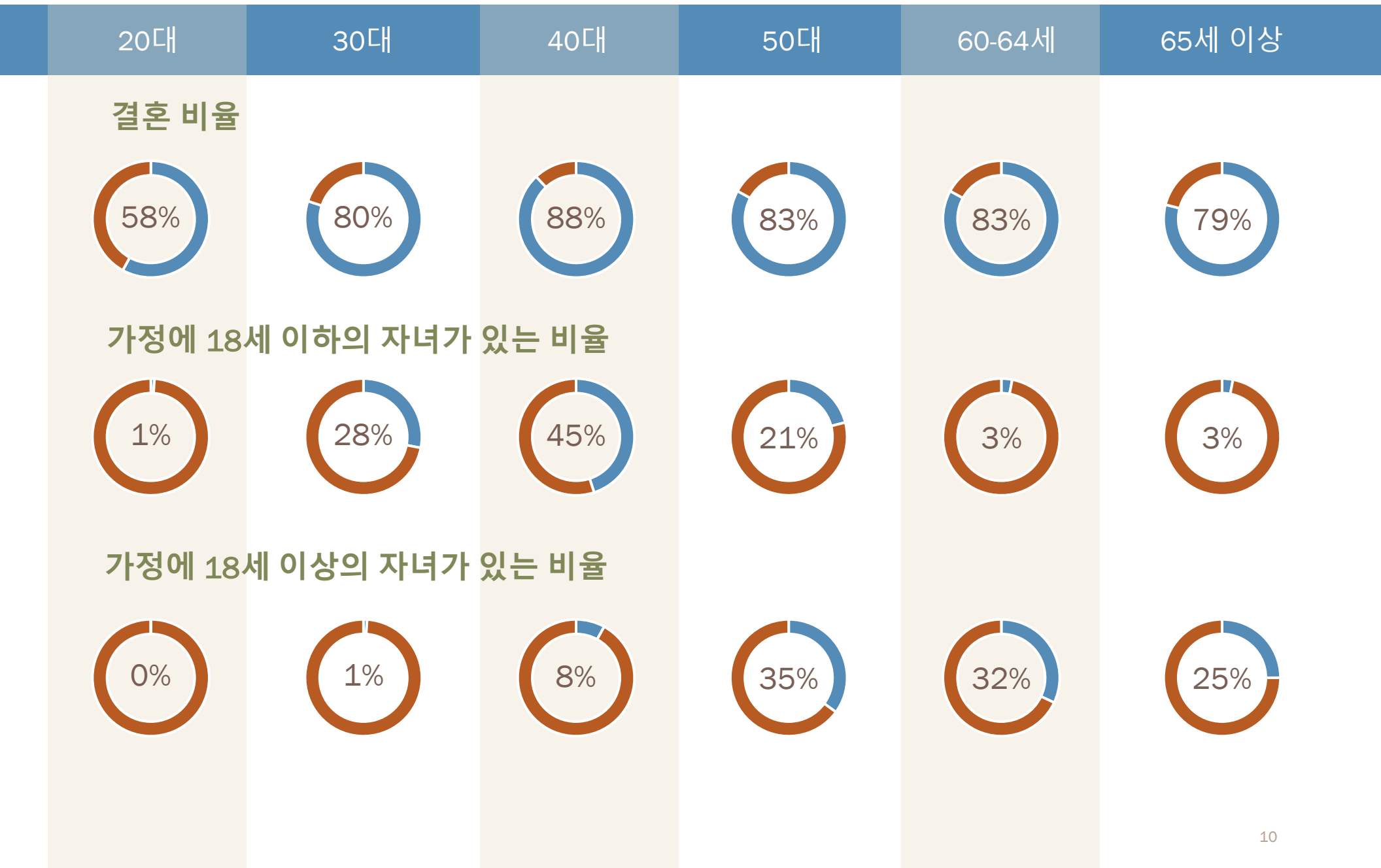
15%는 배우자나 파트너 역시 미국장로교 목회자다

또 미국장로교 목회자 부부의 4%는 공동 목사로 함께 사역하고 있다

가정의 자녀들

평균적으로 목회자는 18세 이하의 자녀 1.5명, 18세 이상의 자녀 1.2명과 한 집에서 살고 있다.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자녀의 평균치는 1이다.

연령대에 따른 목회자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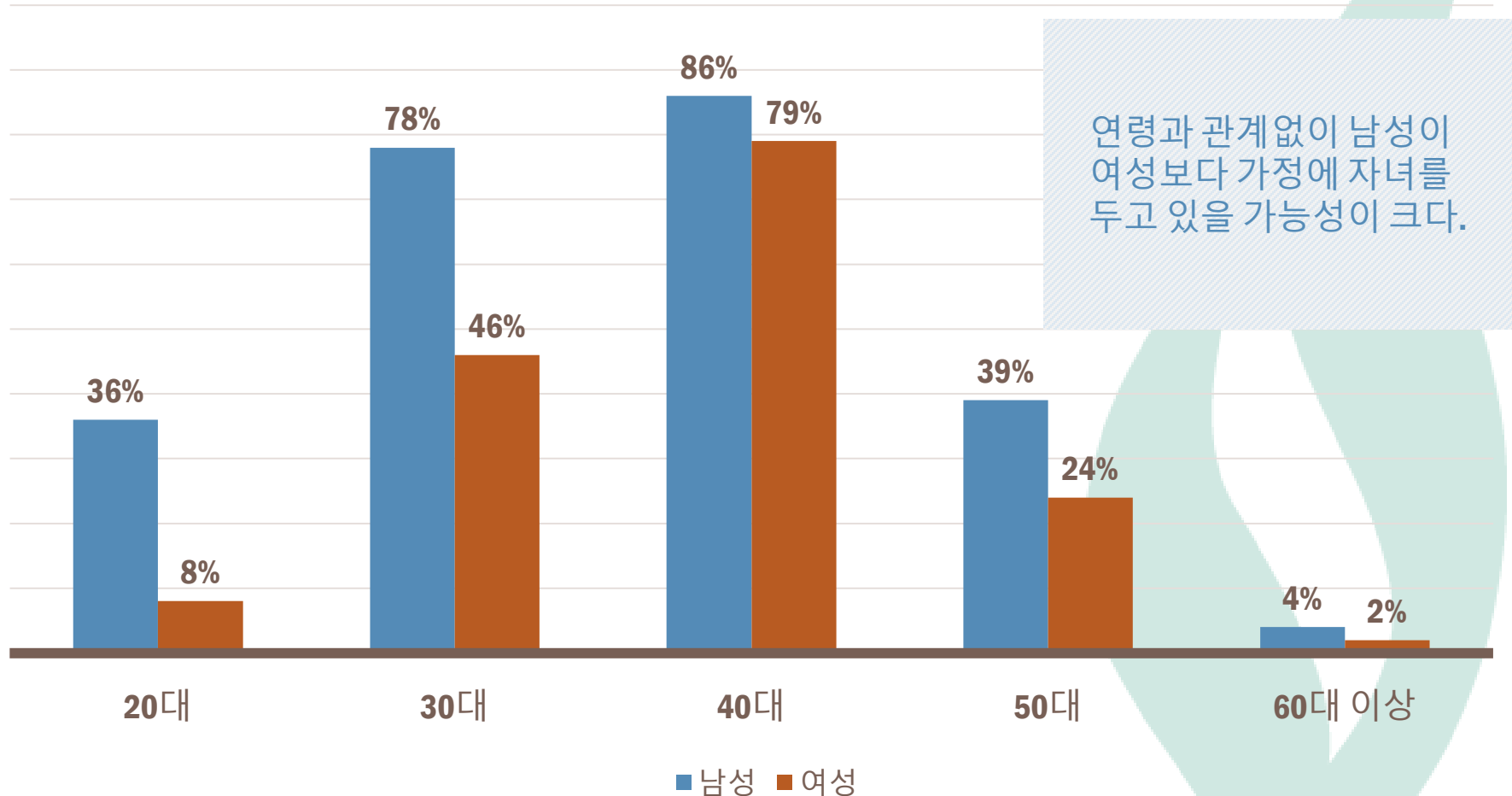


성별에 따른 목회자 가정

사역하고 있는 남성이 결혼해서 자녀를 가질 경우가 여성보다 더 높다.

남성 목회자의 90%가 결혼한 반면에 여성 목회자는 68%만 결혼했다. 모든 연령대에서 이 차이가 나타났다. 목회자의 결혼의 차이는 30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남성의 94%와 여성의 68%가 결혼했다.

또한 남성은 여성보다 집에 18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



리서치 서비스는 미국장로교가 설문조사, 주요 대상 면접, 인구통계적 분석, 프로그램 평가 등을 이용해 데이터에 기초한 결정을 하도록 돕고 있다.

우리는 사회학, 공공정책, 경제학 등의 배경을 지닌 사회과학자들이다. 우리는 미국장로교 교회, 노회, 대회, 총회 기관 및 관련 조직을 섬기고 있다. 리서치 서비스는 행정서비스 그룹의 사역이다.

질문이 있거나 이 보고서 사본을 원할 경우,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여 주세요. 502-569-5077에 전화 주시거나, research@pcusa.org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RESEARCH
SERVICES**